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문학·시각예술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문학·시각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00 ~ 15: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권갑하, 변종필, 이소연, 장철문, 조주현, 최창희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은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 기회 및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전문인력 육성'과 '신규인력 및 전문인력 고용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 3개의 지원사업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문화예술단체가 수요인력을 계획하고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단체에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및 전문인력의 인건비(10개월)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전문인력 육성' 및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의도를 가진 프로젝트라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의 지원 취지와 목적에 맞는 수요인력을 계획하고 지원을 신청했는지가 중요한 이유이다.

올해 문학·시각예술 분야 심의 건수는 75건으로 문학 9건, 시각예술 66건으로 국공립/민간을 포함한 신청인원은 149명(행정결격전)이었다. 심의는 예심과 본심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심의 기준은 '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30%)',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40%)', 그리고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30%)'으로 총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예심은 '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과 '단체의 예술활동 노력'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온라인 채점 및 전수검토의견 작성을 통해 이뤄졌다. 각 심의위원은 지원단체의 사업을 <심의기준별 등급 및 배점>에 따라 절대평가로 심의했다. 심의위원은 지원신청서를 심의 기준에 따라 '신청인력 운영 계획', '단체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 '신청 단체의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 '2024년도 단체의 예술활동 계획' 등 세부평가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항목별로 A~E 등급으로 평가했다.

본심은 6인의 심의위원이 모여 위원별 예심심의 결과와 심의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원단체별 최종심의로 진행되었다. 예심으로 이뤄진 심의위원별 정성평가(70점)와 노무사의 정량평가(30점)로 진행된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부분의 점수가 합산된 심의위원 개별 점수의 평균(회피는 제외)을 해당 신청사업의 최종점수로 삼았다. 특별한 이견 없이 분야별 6인의 심의위원 합산점수에 따라 순위가 정해졌다. 최종 점수 평점이 75 이하인 경우는 규정에 따라 과락으로 판단하여 심의 커트라인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지원단체별 순위 점수를 놓고 문학·시각예술 분야별 최종 지원인력 심의를 진행했다.

예산배분은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한 결과 총점 90점 이상에만 지원신청 인원 100%를 지원하며, 이하 점수의 단체에는 지원신청 인원을 1~2명에 한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된 단체들의 공통적인 강점으로는 신청인력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명확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직무(역할)의 타당성, 전문역량의 향상, 단체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의 수준에서 신청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과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무엇보다 선정된 단체들의 계획안은 주요 활동과 프로그램의 수준(양질)에서 '전문인력 육성' 및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라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공통된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신청인원의 적절성이다. 올해 문학·시각예술 분야는 기획경영과 창작실연으로 구분하여 문화예술연수단원 지원이 1단체당 최대 4명까지 가능했다. 이때 2명 이상 지원신청한 경우 단체의 규모를 떠나 3~4명의 인원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 계획 또는 명확한 직무분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작년 대비 인원을 증원 신청한 경우 증원에 따른 뚜렷한 직무계획 없이 증원만 신청한 경우이다. 이에 증원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명시가 있었으면 한다. 또한, 조직 및 인력 구성의 수준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의 경력 개발과 '전문역량 향상에 필요한 육성 교육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단체들이 늘어났으면 한다.

둘째, 직무의 타당성이다. 현장예술인력 직무 구분에 따른 세부 직무에서 문학·시각예술 분야의 연수 단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직무 위주의 계획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시각예술분야의 경우 경영관리와 경영기획의 세부 직무에서 어떤 직무가 '전문인력 육성'에 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고려한 세심한 직무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 후 현장실사 강화 및 선발인력의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이다. 지원 후 현장실사 및 선발인력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이 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고, 차년도 지원선정에 반영 혹은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상 세 가지는 심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궁극에 지역 문화에 끼치는 파급력 및 예술가치 확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예술활동 계획 수립이 담긴 지원단체 선정에 위한 요건으로 강조되었다. 이 외 '단체의 고용환경 개선 노력', '문학 분야의 참여확대', '전년도 예술활동 성과와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상근 조직 인적 구성 필요', '연속 지원 단체의 경우 횡수 제한 고려' 등에 관한 의견들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의 핵심은 심의 기준에 의한 평가에서 얼마나 세부평가 내용에 충실하게 따르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며, 그 계획 수립이 실행됐을 때 지원단체와 지원인력이 상호 만족할 만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맞게 지속해서 강조될 부분이다.

공모사업은 성격상 심의 기준에 따라 선정과 탈락으로 나뉜다. 그러나 결과는 심의 기준에 따른 순위 간의 점수 차이에 의한 구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올해 심의도 다르지 않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에 지원 신청한 모든 단체는 공통으로 공공적 예술가치 확산에 기여하는 우리나라 문학·시각예술 분야의 소중한 자산임에 동의한다.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를 통해 한국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과 '문화예술단체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 강화'의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심을 다해 사업에 지원하신 모든 단체에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한다.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연극·뮤지컬예술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연극·뮤지컬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10:00 ~ 18:3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민정, 김봉석, 신 호, 안희철, 황승경

이번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은 절차의 일원화, 업무 편의성 향상, 지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3개 단위의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현장예술인력지원의 사업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약간의 신청대상(6개월 이상, 상근인력 1명 이상 근무), 자격조건(연수단원 전공청년 만34세이하, 무대기술분야 신규인력은 만39세이하, 단체 소속 근로자 만59세이하 실무경력 3년의 전문인력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는 본 사업이 단순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청년 취업기회 및 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과 진입, 그리고 전문인력의 고용지원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예술활동 및 창작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재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연수단원의 정규직 고용 전환을 위한 설계도 함께 제시되었다.

따라서 심의기준도 정성지표와 정량지표로 나눠 심의되었다. 정성지표 크게 2개로 세부적으로 '단체의 인력운영 적정성(30%)'은 인력의 직무적절성, 경력개발,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지?, 조직과 구성원은 갖추고 있는가, 경력개발을 위한 인적자원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이며, '단체의 예술활동노력(40%)'은 단체의 프로그램 수준은 적절한가?, 창제작 활동은 우수한가?, 예술활동계획과 프로그램 수준은 적절한가?, 계획 대비 효과는 기대되는가? 등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정량지표는 단체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과 6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수, 4대 보험 가입현황,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등을 지표로 전문노무사 검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장애인 고용 우선 지원 및 1:1(장애인,비장애인) 매칭지원을 유지했다.

최종 결과는 심의위원 5명의 개별채점을 합산, 평균점수와 정량점수를 합한 총점으로 순위에 의한 지원 대상선정을 하였다. 최종 평점결과가 75점 이하는 심의기준에 따라 과락으로 처리하였다.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 사업 취지에 맞고 예술현장 기여도, 파급력, 예술가치 확산과 예술생태계 균형 등을 고려하였으며, 자생력이 있고 단체의 활동영역, 가치 추구등을 재검토를 가졌으며, 동일 조건, 동점인 경우는 지역소재, 전년도 미지원 여부, 신설 추진사업, 초연 창작,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활동의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되도록 많은 단체에 지원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 단체의 역량강화,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고용창출 등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좋겠으나 전년도 비해 줄어든 예산, 타장르에 비해 연극/뮤지컬 분야의 많은 신청건수로 인하여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와 단체의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부족한 지원현실이 드러나 아쉽다.

평점 순위에 따라 인원, 예산 배분으로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으며, 최고 평가 단체에 한해 본 사업의 파급효과 및 실효 효과가 확실하여 최대 지원을 하였다. 또한, 기획·경영에 쓰린 인원은 적절하게 연수단원, 무대인턴에 배분하였다. 대체로 활동성과와 2024년도 활동계획이 뚜렷하고, 신청분야에 대한 적절한 인력구성을 갖춘 단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금의 시장동향 때문인지 신청인원이 기획·경영 등에 많이 쏠려 있어, 심의위원들도 지원인력을 결정하는데 고민을 가장 많이 했다. 서류를 통해 볼 때 예술생태계와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함을 많이 느끼게 된다. 지속 가능한 창제작 환경, 예술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로의 확장성 필요,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시장환경, 그리고 사회, 지구환경 변화가 주는 다양한 이슈 등 단체들이 당면한 고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많은 예술단체들이 본 사업 취지를 더 잘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싶다. 인력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대부분 단체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인식과 전파가 필요하겠다. 이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이며 조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대인관계 능력향상이 양질의 인력육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 기능 육성이 아닌 문화예술 생태적 틀 안에서 사람과 사람의 보편적 가치가 조화롭게 공동체에 파급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무대안전, 성인지, 예술노동, 장애인인식, 문화다양성 등 우리의(예술인 개개인 포함) 인식 확장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고, 또 그러한 사회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생태계도, 사회도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단순 목표 지향이 아닌 보다 통섭적인 안목과 사회 전체를 바라보며 예술의 가치를 끌어 올리는 시대가 아닌가 한다.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무용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무용 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6일(수) 10:00 ~ 15: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연용, 심정민, 이고은, 장지원, 황정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장예술인력지원'은 문화예술 청년 신규채용 및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예술인력을 위한 직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동시에, 기초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련 인력 고용과 그 비용 마련이 어려운 무용계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주목도가 높다 하겠다.

2023년까지 3개의 개별 지원사업으로 공모, 심의로 선정하였던 문화예술기관연수 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을 2024년부터는 '현장예술인력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진행하게 되다 보니 여러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전 서류심의를 거쳐 12월 6일 대면 심의에서는 심의 위원 5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등위를 확인하였으며, 각 단체 및 기관에 관한 적합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지원단체를 결정하였다. 등위, 점수, 적합성, 필요 지원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문화예술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 공연 예술전문인력을 구분하여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 다각적으로도 심층적인 논의를 하였다.

서류심의에서 기준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부각 되었다. 신청 대상에 대한 조건, 구체적인 단체의 인력 운영계획과 적정성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본 사업의 경우 단체와 기관보다는 인력(직원) 입장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심의 역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였다. 필수 자료 제출 여부, 신청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도, 인력지원 수혜의 적절성, 장애인 채용 인력에 대한 계획 등 심의기준에 따라 주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더 나아가 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 공연 전문인력 직종별 특성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등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단체와 기관이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예산의 경우 문화예술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 공연예술전문인력에 따라 책정된 지원액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각 단체나 기관에 배정되는 인력에 따라 최종 지원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높은 경쟁률에서 선정된 단체와 기관은 우선적으로 결격이 없도

록 모든 필수 사항을 충족하였으며, 신청 계획 특히 인력 운영 계획의 구체성과 충실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운영 체계, 무용계 기여도, 활동 역량, 지역 거점, 장애인 채용 등이 두드러진 사례도 있었다.

무용계에서 사회적 기여, 창작적 역량, 인재 양성 등에 있어 많은 활동을 한 단체 이더라도 신청대상인 상근인력 1명 이상 등에 대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노력에 대한 기준이 미비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적용되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인 지원 인력들의 근로를 위해선 단체의 인적 구성과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출 전에 해당 사업의 필요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준을 우선적으로 충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신청서의 사항들을 꼼꼼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인력 운영 계획 등은 본 지원사업의 핵심적인 심의 지표가 됨에도 불구하고 구체성과 충실도가 두드러지지 않은 신청서가 여럿 있었는데 이런 경우 무용계의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다 하더라도 정량적인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현장예술인력지원'은 어려운 시기에 적지 않은 예술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으로 주목도가 높다. 이후 선정 단체 및 기관에서 적절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인력지원이 문화예술단체의 창작기반과 예술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지, 예술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력지원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모니터링 역시 요구되는 바이다.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음악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음악 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0:00 ~ 17: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경아, 김지현, 문옥배, 민경수, 박선희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은 그간 각자 공모하였던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 '무대기술인턴십지원',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의 3가지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공모 신청을 일원화하였기에 지원사업별로 중복 신청하던 단체에는 업무 편의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사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단체별로 성과 관리를 고도화하는 기반을 다졌다는데 통합의 의의를 들 수 있다.

주지할 점은 신청과 사업 관리가 통합되었을 뿐, 각 인력지원의 사업 취지는 예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연수단원'은 만 34세 이하의 문화예술분야 전공 청년을 채용하여 양질의 현장 실무경험과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으로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무대기술 인턴' 사업은 동 분야 입직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인력에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수한 무대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알찬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연예술 전문인력' 사업은 민간예술단체에 전문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 안정화와 단체의 예술활동과 창작 여건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본 사업의 심의기준은 ① 인력운영 적정성(30점), ② 예술활동 노력(40점), ③ 고용환경 개선 노력(3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심의기준은 정성지표로써 안내문에 공개한 세부기준에 맞춰 심사위원 각자 절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하였다. 세 번째 심의기준은 정량지표로 단체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자 자격취득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토대로 점수화한 후 먼저 채점한 점수와 합산하였다.

우리 심사위원단은 이렇게 산출된 예심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채점 전 심층 토의와 토론을 하였다. 이로써 서로의 이해 수준을 고르게 하였고 사업의 특성이나 주요 검토 사안에 대해 의견을 일치시켰다. 특히 2023년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과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채점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종 점수에 근거한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단체를 선정하였고, 그 중 상위 10% 내외에 속하는 단체는 신청인력의 100%를 지원하고, 30% 내외는 80~70% 범위, 나머지 단체는 70~50% 범위의 지원 인원수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심사위원단이 문화예술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 공연예술전문인력의 직군별 중점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신청인력의 직종과 직무의 일치성이다. 예술기획경영과 예술창작실연, 무대기술, 공연기획경영과 무대예술의 직종으로 근무하게 될 인력이 단체에서 실제 부여받는 직무(업무)가 무엇이며 그 수준이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지 자세히 검토하였다. 소규모의 조직에서

다방면의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직종과 명확하게 상이한 직무가 포함된 경우는 높은 등급의 평가를 할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신청인력의 역량을 제고하고 경력개발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 단체의 예술활동과 업무계획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는 현장의 실무경험이 인력 양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계획의 질적 우수성 외에도 신청단체의 주요활동 실적이나 성과 그리고 조직의 인적 구성과 체계를 다층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세 번째, 공공기금 투입의 당위성과 정당성 그리고 지원 효과를 집중해서 보았다. 신청단체의 예술활동이 음악 분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 파급력과 가치 확산 정도를 살펴봄과 동시에 인력 지원이 정당한가를 종합적으로 고민하였다.

음악 분야 심의위원단은 총 133건의 신청서를 개별 전수검토하고 예심과 토론을 거쳐 최종으로 개별 평가하여 63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단체별로 문화예술연수단원 80명, 무대기술인턴 4명, 공연예술전문인력 16명의 인원을 배정하였다. 이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신청 인력 중 장애인력 채용을 신청한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단체 대표자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인력이 적어도 1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신청단체가 일부 있었고, 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심사위원단은 본 지원사업을 심의하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재차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이 단순한 인건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잘 살려 청년이나 종사자, 그리고 신청단체 모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위해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수행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며, 향후 있을 사업 모니터링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수 인력의 고용 안정과 단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연수단원으로 참여한 인력을 대상으로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지원하는 별도의 사업이 있으니 비단 2024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단체라 할지라도 관심을 두시고 지원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00 ~ 16: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민소윤, 변종혁, 조주선, 진영준, 한상일

본 사업의 취지는 문화예술분야 청년 취업 기회 및 현장실무를 통해 예술기획 및 경영, 예술창작 실연의 진입과 육성을 도모하고, 신규인력 및 전문인력 고용지원을 통한 단체의 예술활동 창작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 심의 위원들은 지원신청서와 붙임 서류들을 세밀히 검토하였다.

심의 기준은 사전 공지된 심의 기준표에 준하여 신규인력 육성에 대한 체계적 계획과 그에 따른 단체의 조직역량, 예술활동을 고려하였으며, 전문인력의 경우에는 단체의 역량 강화에 전문인력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였다.

심의는 정량점수와 정성점수를 합쳐서 선정권에 있는 단체 대상으로 단체의 활동 내용, 지원신청서 작성의 오류 확인 등을 세밀한 평가를 거쳐 총점 기준 상위점수를 받은 단체의 신청인력을 우선시하면서, 동시에 연수단원, 무대기술인턴, 공연예술전문인력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지원인원을 결정하였다.

전체적으로 단체 활동을 통한 예술인력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점을 중요시하였고, 공연기획사의 경우는 단체의 공연예술작품의 전통성과 확장성, 극장을 보유한 단체 혹은 극장 지원의 경우에는 대관공연과 자체기획, 제작 공연의 비율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전통예술 민간단체 신청 중 일부 세부 장르에서 많은 지원신청이 있었으나 특별히 세부장르에 따른 배분을 하지 않고, 평점(총점) 기준에 근거하여 인력배분을 하였다. 기획·경영과 창작·실연 연수단원을 동시 지원한 단체의 경우 예술활동 이력과 계획에 비추어 창작·실연 쪽에 비중을 높이 두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인력지원사업이 통합 공모된 첫 사업이니 만큼 지원신청서에 신청단체의 인력이 필요한 직군, 직종, 세부 업무에 혼동이 있는 단체도 많이 보였다. 많은 단체가 필요로 하는 인원만큼 지원하셨을 터인데 본 사업의 예산 한계로 지원되는 인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된다.

지원해 주신 모든 단체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린다.

현장예술인력의 직군과 직종이 구분되어 선정된 만큼 선정된 단체는 선정인력을

그 구분에 따라 고용하고 운영하시길 바란다. 기획·경영 연수단원의 경우 말 그대로 연수단원이니 만큼 예비 전문인력으로 성장이 잘 되기를 희망하여 실무자급의 책임보다는 여러 기회와 경험을 통해 예술인력으로써의 체계적 발돋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란다. 창작·실연의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올곧이 예술 활동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 창의적 예술가로서의 발돋움이 되고, 더불어 단체의 예술활동 창작기반이 강화되고 창의적 레파토리 개발과 기존 작품의 업그레이드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

미선정된 단체에는 아쉬움 마음을 전하며, 선정되신 50개 단체와 82명의 현장예술인력분들의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고 응원하겠다.

심의위원 일동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문화일반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 문화일반 분야
- 회의일시 : 2023년 12월 1일(금) 10:00 ~ 16:00
- 회의장소 :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 세미나 2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지성, 김한신, 오진이, 윤정국, 현어진

2024년도 현장예술인력지원사업은 기존의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사업, 무대 기술인턴십지원사업, 공연예술전문인력지원사업 3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지원규모가 확대되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예술단체는 창작역량 강화와 고용 안정을, 청년 예술인력은 현장 참여를 통해 예술직무능력을 강화하여 이후 예술분야에서 원활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이다.

본 사업은 신청단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단체의 인력 운영 계획, 조직 운영, 기존 예술활동의 성과와 2024년도 활동계획 등을 심의기준에 따라 정성평가를 진행하였고, 지원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무사의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1차 심의를 마쳤다.

2차 심의는 신청단체가 제출한 교육 등 인력 계획의 실효성과 업무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단체의 노무관리 수준과 고용 창출 노력도 주요 쟁점으로 토론했다. 일부 단체는 인력의 수를 과하게 신청하거나, 직무 교육계획 등이 모호하여 아쉽게도 기회를 드리지 못하였다. 전년도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보여준 단체는 공모요강에 따라 지원인원을 논의 후 결정하여 최종 심의결과 총 44개 단체, 75명 지원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단체는 국공립 13개 20명, 민간 31개 55명이다.

신청단체 대부분 충분한 지원자격을 갖추고 있어 예술계도 타 산업과 같이 직종, 직무의 개념과 체계적인 전문교육 시스템, 노무 행정이 정착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술계는 관련학과가 배출한 전공생을 포함하여 신규 인력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현장은 무대기술과 플랫폼의 발달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창작단체가 등장하고 있으며, 콘텐츠와 브랜드를 갖춘 단체들은 전문인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관·단체는 안정된 조직을 기반으로 예술분야 고용인력의 역량 강화와 직무개발에 노력하고 있는데, 맞물려 있는 서로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정된 고용 환경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과 상생 문화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 심의위원회는 본 사업이 청년예술가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단체에게는 사업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예술계가 더욱 건강한 창작문화를 구축하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작품으로 사회에 보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심의위원 일동